

#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밝은 미래와 영광

창12:1-4

지난 30여 년 동안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의 중요한 책들을 거의 다 매 구절 강해하였다. 모두 영상으로 올라갔다. 이제 목회 사역 마무리를 하면서 성경의 중요한 책들을 5-600쪽 책으로 묶어서 출간하려고 한다. 글로 책으로 자료를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레위기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 500쪽을 지었고 3주 안에 출간될 것이다. 요즘 창세기 강해 주석을 쓰고 있다. 600여쪽 될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쓰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강해한 것들 중 중요한 것들을 자료로 남기려 한다.

창세기 강해를 쓰다 보니 양이 많다. 창세기는 50장이다. 구약: 929장, 신약: 260장

합계: 1,189장, 그러면 창세기 50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2%

즉, 장 수 기준으로 보면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약 4% 정도다.

영어 본문 기준 KJV 전체 단어 수: 약 783,000 단어, 창세기 단어 수: 약 38,000 단어

비율을 계산하면: 약 4.8~5%, 장 기준 → 약 4.2%, 실제 글 분량 기준 → 약 5%

창세기 강해를 마무리하고 나니 질문이 남는다.

“왜 하나님은 전체 성경의 5%를 창세기에 할애했을까?”

아니 더 근본적인 질문, 대체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성경과 창세기의 구조가 이것들을 말한다.

창조 이전: 사탄과 천사들의 창조

창조: 우주 공간과 지구와 그 안의 모든 것들 창조, 인간 창조,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범죄와 타락, 사망이 들어옴

하나님의 창세 전 계획: 여자의 씨를 통한 인간 구속(창3:15)

마귀가 이를 방해함: 창6장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의 결합, 온 인류가 사악함, 노아의 8식구 빼고 모두 멸절됨

홍수 이후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들로 땅을 채우시며 다시 인간 구속 프로젝트를 재개함

## 창세기의 구조

이 모든 것이 창세기에는 톨레도트라는 표현으로 구체화가 됨

“세대들은 이러하니라.”(These are the generations of...)는 창세기에서 10회(창 2:4; 6:9; 10:1; 11:10; 11:27; 25:12; 25:19; 36:1; 36:9; 37:2) 나온다. (\*)

히브리어 톨레도트는 “낳다, 출산하다”는 뜻을 가진 어근에서 나온 명사로, 어떤 출발점으로부터 나와 이어지는 것들 전체를 가리킨다. 따라서 톨레도트는 단순한 시간적 의미의 “세대”를 넘어, 기원과 계보, 그리고 그로부터 전개되는 흐름까지 포함하는 표현이다.

이와 같은 개념은 영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영어 동사 generate는 “낳다, 생성하다”는 뜻을 가지며, generation은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다. 본래 “생겨난 것들”이라는 의미에서 출발하여, 이후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으로 확장되었다. 우리말 “세대” 역시 결국 사람들의 무리를 전제한 표현이다. 이처럼 히브리어 톨레도트, 영어 generation, 우리말 세대는 모두 “어떤 출발점으로부터 나온 것들”이라는 공통된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창세기 전체에서 열 군데에 걸쳐 반복되는 톨레도트라는 표현은 창세기 본문의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각각의 경우를 보면, “아담의 세대들”(창 5:1)에서 인류의 계보가 시작되고,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창 6:9)부터는 노아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역사가 이어진다. 이어서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창 10:1) 뒤로는 그 세 아들을 통해 퍼져 나간 민족들의 계보가 기록되며, “셈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창 11:10)부터는 셈에게서 이어지는 계보가 계속 전개된다. 이와 같이 톨레도트 표현은 창세기의 문단을 나누는 구조적 표지 역할을 한다.

창세기는 단순히 여러 이야기들의 모음이 아니라, 이 톨레도트 표현을 축으로 하여 창2:4의 하늘과 땅의

생성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질서 있게 전개되는 통일된 책이다. 특히 열 군대의 툴레도트 표현 가운데 첫 번째가 하늘들과 땅을 기준으로 하고(창 2:4), 마지막이 “야곱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창 37:2)로 마무리된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창세기는 우주적 창조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으로 점차 범위를 좁혀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툴레도트 표현은 그 흐름을 단계적으로 이어 주는 구조적 원리로 기능한다.

여기의 야곱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다.

그러므로 창세기가 말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인류 보존 및 구속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아야 한다.

그런 넓은 시각으로 성경과 인류 역사를 볼 때 성경 이해, 인류 역사 이해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밝은 미래와 영광>,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역사, 미래를 포함해서 성경 정체를 아우르는 주제를 다루려 한다.

### 유대인과 이스라엘 역사

창12:1-4를 읽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땅과 씨와 복의 약속을 주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 약속으로부터 한 민족이 탄생하였고, 그 민족을 통해 인류의 구속 역사가 전개되었으며, 그 민족의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왔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왔으며, 야곱의 열두 아들로부터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형성되었다. 이집트의 종살이와 광야의 방랑, 가나안 정복과 왕국의 영광, 분열과 멸망과 포로 생활, 귀환과 침묵의 400년,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과 거절,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 1948년의 건국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과 은혜가 교차하는 드라마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민족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순서대로 살펴보려 한다.

###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12-25장 10절까지는 아브라함 이야기, 땅, 씨, 복의 근원, 구원부터 성화까지 자세히 일대기가 나온다. 칭의, 믿음, 할례, 성화(창22), 모리아 산, 성전

이삭의 생애(창24-28장): 창세기 22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 모리아 산 제단 위에 올려졌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살아 돌아온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언약의 계승자로 등장한다. 아브라함에게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다리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씨와 복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 다음 세대로 흘러갔다.

1. 리브가와 의 결혼
2. 예서와 야곱의 출생 (창 25:19-34)
3. 이삭의 개인적 삶 (창 26장) 우물 파는 이야기
4. 야곱을 보내는 이삭 (창 28:1-5)

야곱의 생애(창28-50장)

벤엘, 라헬과 레아 20년 고생, 압박 강과 브니엘, 디나 사건, 벤엘로 올라감, 요셉과 열두 형제 이야기,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감, 총리가 됨, 온 지역의 기근, 요셉과 야곱의 재회 등

창세기 22장 이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성경의 초점은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열두 지파로 자연스럽게 옮겨간다. 야곱이 열두 지파를 축복하고 죽은 뒤, 그 후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으로 창세기는 막을 내린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계보가 한 민족으로 확장되는 과정이 이어진다.

### 유대인은 누구인가?

‘유대인’이라는 말은 본래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살던 히브리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특히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왕국 시대에 이르러 르호보암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라가 나뉘게 되는데, 남왕국 유다에는 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주하였다.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지파는 유다 지파였다. 따라서 ‘유대인’이라는 말은 본래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메시아가 나오는 그 계통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었다(왕하 16:6; 예 2:5).

Jews(왕하16:6 등 총 5번), 왕정 시대 끝 부분, 남유다 왕국이 쇠퇴하고 국제 정세 속에서 “유다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하던 시점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특징이 분명하다. 나머지 “Jews”라는 표현은 거의 전부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 즉 포로기 및 그 이후 시대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보여 주는 역사적 증거이기도 하다. 이 민족은 오랜 세월 세계 각지로 흩어져 약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살아왔지만,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웠다. 한 번 흩어진 민족이 수천 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난 후 동일한 정체성을 유지한 채 같은 땅으로 돌아와 국가를 재건한 사례는 인류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 주는 하나의 강력한 증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인가?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맡았다는 것이라고 말한다(2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기 위해 이 민족을 사용하셨고, 구약 성경은 그들을 통해 전수되었다. 신약 성경 역시 대부분 유대인 저자들을 통해 기록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으로 오셨다. 그러나 유대인의 사명은 단순히 말씀을 보존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부르셨다. 이는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민족은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고, 결국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흩어지는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롬 11:29)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민족은 거절과 흩어짐과 회복의 긴 과정을 지나, 마침내 천년 왕국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중심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며, 제사장 나라로서의 본래 사명을 완전히 성취하게 된다.

### 이스라엘 사람(민족)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이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곧 야곱의 후손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오 이스라엘아!”와 “오 야곱아!”가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창32:27-28, 그가 야곱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므로 야곱이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니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힘을 겨루며 사람들과 힘을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야곱에게서 시작되지만, 야곱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므로 결국 아브라함이 이 민족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른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서 ‘아버지’는 단순한 가족 관계가 아니라 민족의 조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브라함은 정착한 사람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목자였다.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았다.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땅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한 채 믿음으로 살아갔다. 그러한 삶의 흐름 속에서 야곱의 열두 아들이 태어나 열두 지파가 형성되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의 아들 요셉이 먼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고, 기근이 임했을 때 가족들을 이집트로 불러들였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

다.

### 이집트 노예생활과 가나안 정복 및 재판관들의 시대

창세기 15장 13-16절에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섬기게 될 것과, 그 이후 네 번째 세대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미리 알려 주셨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신다.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당시에는 한 세대를 약 100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세대는 약 400년에 해당한다.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부에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새를 쪼개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전체와 맞지 않는 해석이다. 레위기의 규정을 보면, 새를 드릴 때는 원래 쪼개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방식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불순종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하나님께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두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충분히 번성하여 하나의 큰 민족으로 형성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둘째는 가나안 땅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그 기간 동안 점점 쌓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큼 충만해지도록 기다리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공의가 충만해질 때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 걷는 남자만 약 60만 명이었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300-400만 명에 이르는 큰 무리가 되었다. 그러나 이집트를 탈출한 첫 세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모두 죽었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모세 역시 그 과정에서 죽었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이스라엘은 재판관들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무엘이 마지막 재판관이 될 때까지 이어진다. 이 시기의 특징은 반복되는 영적 타락과 회복의 순환이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게 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세워 구원하신다. 그러나 그 재판관이 죽으면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이 시대를 이렇게 요약한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때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그 왕을 버리고 각자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던 시대였다. 이러한 혼란과 반복되는 실패의 끝에서, 백성들은 결국 인간 왕을 요구하게 된다.

### 왕정 시대와 왕국의 분열

사무엘이 마지막 재판관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허락하시면서 이스라엘에 왕정이 시작되었다. 초대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이 각각 40년씩 통치하여 약 120년 동안 세 사람이 연속하여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였다. 백성들이 세금과 노역의 짐이 너무 무겁다며 가볍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르호보암이 이를 거절하였고, 그 결과 왕국은 둘로 분열되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게 넘어가고,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었다.

열두 지파 가운데 북쪽에서는 요셉의 지파인 에브라임이 중심 세력이었고,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었다. 가나안 정복 당시에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고 갈렙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다. 남왕국 유다는 아달라라는 여왕이 잠시 등장한 것을 제외하면 바빌론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계속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러 왕조가 바뀌며 통치되었고, 성경의 평가에 따르면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숭배가 극심해지면서 결국 BC 721년에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마지막 왕은 호세아였으며, 그 멸망의 이유는 열왕기하 17장 6-23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아시리아는 북왕국을 멸망시킨 뒤 인구를 강제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고, 대신 다른 민족들을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켰다. 그 결과 남아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이 섞이게 되었고, 신앙도 혼합되기 시작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옛 신들을 섬기는 혼합 종교가 형성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족적 혼합도 일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이스라엘 혈통이 섞인 혼합 민족이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상중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이 요한복음 4장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남왕국 유다는 약 100년 이상 더 존속하였다. 그러나 유다 역시 우상숭배로 인해 결국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세 차례에 걸쳐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다. BC 606년, 597년, 586년의 세 번이며, 다니엘이 잡혀간 것은 첫 번째 포로 때인 BC 606년이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고, 그 멸망의 과정은 열왕기하 25장에 기록되어 있다.

바빌론 포로 생활은 약 70년 동안 이어졌다. 이는 대언자 예레미야가 미리 예언한 기간이었으며(렘 25:11-12),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그 기간을 깨닫게 되었다. 이 포로 기간 동안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났다.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회당을 형성하게 되었다.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예배가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배경이 된다. 70년이 차자 바빌론 제국은 무너지고 메데-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였다. BC 536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 바빌론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집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대하 36:22-23).

포로들의 귀환 역시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다윗 왕의 후손인 스룹바벨의 인도로 BC 536년에 이루어졌으며, 이들에 의해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하여 BC 516년경에 완성되었다(에스라 1-6장). 두 번째는 에스라의 인도로 BC 458년에 이루어졌고(에스라 7-10장), 세 번째는 느헤미야의 인도로 BC 444년에 이루어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다(느헤미야기). 에스더기는 이 세 차례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 남아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대언자는 말라기였다. 말라기가 BC 440년경에 기록을 남긴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침례자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는 계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기간은 흔히 '침묵의 400년'이라고 불린다. 이 시기에 외경이라 불리는 여러 역사적 문서들이 기록되었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침묵의 400년과 열강의 각축

침묵의 400년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페르시아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무너졌다. 그는 BC 331년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이어 BC 330년경 페르시아 제국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BC 323년에 갑자기 죽자, 그의 제국은 여러 장군들에 의해 분열되었고 결국 네 개의 왕조로 나뉘었다. 그 가운데 특히 강력했던 두 세력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레우코스 왕조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였다.

지리적으로 보면 시리아가 북쪽에 있고, 팔레스타인이 그 중간에 있으며, 이집트가 남쪽에 위치한다. 이 구조 속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세력을 확장하려면 북쪽으로 올라가야 했고, 셀레우코스 왕조가 강성해지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서로 충돌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은 양 세력 사이의 통로가 되었고, 끊임없는 전쟁과 약탈 속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극도로 피폐해졌고, 이러한 고통 속에서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바라는 기대, 곧 메시아 대망 사상이 점점 강하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BC 168년,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들어가 돼지를

희생물로 바치는 신성모독 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극도의 모욕이었고, 결국 맛다디아와 그의 다섯 아들을 중심으로 독립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반란을 마카비 반란이라 하며, 이로 인해 하스모니아 왕조가 형성되어 일정 기간 유대인들의 자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자치는 오래가지 못했다. BC 63년에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외세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약 60년 전부터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방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삶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깊은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고,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더욱 강해졌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이다.

이 시기에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종교 집단이 형성된 것이다. 사두개인들은 기록된 성경만을 권위로 인정하며 부활이나 천사와 영의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제사장 계층과 권력층에 속해 있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더하여 자신들의 전통과 해석을 함께 강조하였고,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가말리엘, 사도 바울, 니고데모와 같은 인물들이 이 바리새인 계통에 속해 있었다.

이러한 종교적 흐름은 바빌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신앙의 변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포로 이전에는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악이었으나,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그 위험성을 뼈저리게 깨닫고 더 이상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간의 전통과 규례가 점점 더해지는 문제가 생겨났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규정들이 덧붙여지면서 신앙은 점차 형식화되고 외식으로 흐르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집단이 형성되었고, 이것이 신약 시대의 종교적 상황을 이루게 되었다.

#### 예수님의 초림과 이스라엘의 거부

침례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칠 때,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 온 사람들은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기대를 품게 되었다. 바로 그런 시대적 긴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1-13절이 보여 주듯이,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그분의 백성’은 유대인을 가리킨다.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셨지만, 그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롬 15:8).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이 주어졌다.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유대 땅에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려 하셨으나, 그 왕을 백성이 거절함으로 그 왕국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연기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마 23:37-39)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올리브 산에서 승천하셨다. 그분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에 싸여 올라가셨고,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고 증언하였다. 이것은 그분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며, 올리브 산에서 승천하셨으므로 다시 그곳으로 오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다. 그러나 그 승천 이후 약 40년이 지난 AD 70년경, 로마 군대가 티투스 장군의 지휘 아래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도시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쫓겨나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이로써 디아스포라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을 겪게 되었다. 그 고난의 절정이 20세기 히틀러에 의해 자행된 홀로코스트였다.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인종 차별의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관련된 깊은 영적 전쟁의 한 단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메시아가 오셨고, 그 씨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야 하는데, 그 씨를 끊어 버리려는 시도가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홀로코스트의 잿더미 속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열망은 더욱 강해졌고,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948년 5월, 유대인들은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게 되었다.

### 유대인들의 미래

1948년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다. 그리고 1967년, 6일 전쟁을 통해 구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 구예루살렘 안에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모리아 산이 포함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했던 바로 그 산, 다윗이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장소가 다시 이스라엘의 통제 아래 들어온 것이다. 구예루살렘을 회복함으로써,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제 그 자리에 성전을 다시 세우려는 움직임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순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7년 환난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 이후에 7년 환난기가 시작된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게 된다. 그러나 그 언약의 중간인 3년 반이 되었을 때 그 언약이 파기되고, 적그리스도가 성전 안에 들어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 그림 미래 일들 개요(\*)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이 환난기를 살아가게 될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다. 이 시점에서 교회는 이미 휴거되어 이 땅에 없는 상태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16절에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이 유대인들을 향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또한 24장 20절에서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고 하신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상황을 전제로 한 말씀이다.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안식일 준수가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마태복음 24장은 환난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과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겪게 될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다. 이 마지막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환난을 겪게 된다. 그러나 바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로마서 11장 26절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 사건을 가리킨다.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거절해 온 이 민족이 마침내 그 메시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다.

비로소 이때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이 기다려 온 메시아이셨음을 깨닫고 깊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을 심판하시게 된다. 스가랴 14장 4절은 “그 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실 것이요”라고 기록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올리브 산으로 다시 발을 딛고 오시는 것이다. 올라가신 곳으로 다시 오신다는 사도행전 1장의 천사들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이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기록된 양과 염소의

민족 심판이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 중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모든 민족을 앞에 모으시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나누신다. 여기서 양은 7년 환난기 동안 이스라엘을 도운 민족들이며 염소는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외면한 민족들이다. 양에 해당하는 자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염소에 해당하는 자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 심판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환난기를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한 행위에 대한 심판이다. 천년 왕국에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남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가게 된다. (\*)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최종적인 성취에 이르게 된다.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다. 흩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모여 살아나는 것을 보여 주는 이 환상은 1948년의 이스라엘 건국으로 1차적으로 성취되었고,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성취된다. 에스겔 37장 21-22절은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그들이 가서 함께 거하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려오리라. 또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결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사야서 11장에는 그 왕국의 모습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 1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오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분이 천년 동안 온 땅을 다스리신다. “이리도 어린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젖 떤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사 11: 6-8) 이것은 아담의 타락 이전에 있었던 창조 세계의 평화가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 (\*)

에스겔서 40-48장에는 천년 왕국에 세워질 성전과 그 성전에서 드러질 예배,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토지 분배가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에스겔서 48장에는 12지파가 팔레스타인 땅을 각각 나누어 분배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단 지파부터 시작하여 각 지파가 동서로 뻗은 일정한 구역의 땅을 받게 되며, 그 중앙에 하나님께 드러지는 거룩한 구역이 있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는 그 도시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말한다. (\*)

이스라엘 백성은 천년 왕국에서 모든 민족들의 우두머리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때 완전하게 성취된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씨와 복에 대한 약속은 처음부터 이 천년 왕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들을 약속하셨을 때 그분은 이미 그 끝을 보고 계셨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는 분이시다.

### 결론

창세기와 성경과 인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라.

그리고 유대인들을 주목하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창12:2-3)

하나님의 큰 틀에서 성경을 보고 인류 역사, 팔레스타인 전쟁 등을 보라.

항상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이다.”(롬3:4)

죽기 전에 여러 차례 성경을 읽고 죽기 바란다.

“성경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요5:39)